

## 믿음의 사람들 Ⅲ.

### 고난과 시련을 통과한 자에게 오는 평강이 진짜 믿음입니다

---

[마가복음 4:39]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 1. 믿음의 크기가 있다.

[누가복음 17:6]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뽕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누가복음 7:9]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믿음은 영적인 영역이다. 영적인 영역을 '계량화, 수량화' 하기란 사실 어렵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인 영역인 '믿음'에 대해서는 '크기'를 말씀하셨고, 백부장과 같이 '믿음의 질'을 말씀하셨다.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사실 영적인 영역은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지 않다. '계량화, 수량화'가 가능하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사랑을 생각해보자. '사랑'도 깊은 사랑이 있다. 넓은 사랑이 있다. 진한 사랑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얇은, 좁은, 희미한 사랑도 있다. 넓은 사랑의 예는 '부모님의 사랑'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바다처럼 넓기만 하다. 그래서 언제나 부모님들은 자식이 어떤 경우에 있던지 조건없이 자식을 받아 주신다. 대표적인 예가 탕자의 비유이다.

진한 사랑은 '신부'의 사랑이 있을 것이다. 아가서에 나오는 신부의 사랑의 여정은 놀랍기만 하다. 신랑의 사랑을 인식하기 시작한 처음사랑의 신부, 그리고 많은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다시 신랑 앞에서는 신부의 사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요한계시록에 2장에 나오는 에베소교회를 보라. 요한계시록 2:4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기록한다. 무슨 말인가? 처음 사랑의 마음이 식어진 에베소교회를 향한 책망이다. 믿음도 마찬가지이다. 소망도 마찬가지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측량'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의 말씀처럼 '큰 믿음'을 이야기 하셨다.

#### 2. 큰 믿음이란 무엇인가?

큰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뿌리는 어디인가? 믿음의 뿌리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큰 믿음이란 '마음이 넓어진 상태, 즉 큰 마음'이라 말할 수 있다. 담아낼 수 있는 마음을 말한다. 그렇다면 마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 마음은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마음-레브 쇼메아'의 의미를 살펴보면 된다.

[열왕기상 3:9]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번역된 '레브'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정서, 의지와 지성까지 (생각, 기억, 직관력, 지식, 판단력, 의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된다. 어떤 것에서나 그 '중심'으로 사용된다. 마음을 '하나'로 명확히 정의할 수 없겠지만, 성경적 관점의 이해는 '생각, 정신'이라 할 수 있다. 생각이 중요하다. 생각이 결국 행동을 주관하기 때문에 '생각의 상태'는 중요하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왜 행동을 하지 않는가? 행동을 주관하는 생각의 전적인 동의가 없기 때문이다. 환경과 상황 앞에서 생각이 지배받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이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위축되거나 두렵거나 의심' 이 든다. 이런 마음 상태속에서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위에서 언급한 믿음의 사람들은 '큰 믿음' 을 가진 자들이다. 큰 믿음이란 무엇인가?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앞에서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정렬' 된 상태를 말한다. 환경과 상황 앞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 3. 정렬된 마음 - 'shalom'

영적으로 정렬된 상태는 '안정감' 을 말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정감이란? 'shalom(평화)'을 말한다. shalom의 상태는 절대적인 안정감을 말한다. 두려움이 없는 상태, 온전한 상태를 말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임한 상태를 말한다.

[요한복음 14:27]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 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 하셨다.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한 마음' 에 주어지는 예수님의 선물은 '평안' 이다. 이 절대적 평안은 두려움과 근심의 구름이 지나간 상태를 말한다. 엄청난 폭풍이 지나간 후에 나타나는 맑은 하늘과, 상쾌하고 청명한 공기, 따스한 빛이 비추어지는 절대적 안정감의 상태를 말한다.

### 4. 두려움과 근심의 구름이 오는 이유 - 큰 믿음이 생겨남.

[마가복음 4:37-41]

37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38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39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40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41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그렇다면 큰 믿음은 언제 오는가? 또 큰 믿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이에 대한 좋은 예는 '풍랑속에 있었던 제자들'의 이야기이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왜들 무서워 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라고 질문하셨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믿음을 말씀 하시면서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보고 계셨다. 거센 풍랑에 흔들렸던 배처럼, 그들의 마음의 배도 두려움의 파도 앞에 잠식 당하고 있는 상태를 지적 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풍랑 뒤에 바람이 그치고, 풍랑의 흔적을 조금도 찾아 볼 수 없는 고요한 평화의 상태를 말한다. 성경은 풍랑 뒤의 상태를 '바람 한 점 없는 아주 고요한 상태'였다고 말한다.

믿음의 상태란 풍랑 뒤에 찾아온 고요한 안정감이 심령에 가득한 상태를 말한다. 그 마음안에는 거센 바람, 파도, 폭우는 찾아 볼 수 없다. 주님은 '두려움과 믿음' 에 대해서, 제자들이 겪은 실제적 풍랑을 통해 설명하셨다. 여기에 그 과정이 있다.

#### (1) 잠식당하고 있는 생각 (37절)

우리 인생은 항해를 하고있는 배로 비유해 볼 수 있다. 항해에는 거센 바람이 불어올 수 있다. 또한 그로인해 일어나는 파도가 나의 배 안에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가득차서 침몰 직전까지 갈 수도 있다.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제자들은 항해 전문가들이었다. 바람도 알고 바다도 알았다. 그리고 배도 잘 알았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을 넘어선 거센 바람과 파도가 칠 때이다. 내 힘으로 조절 불가능한 상태이다.

인간이 두려워 할 때는 한 순간이다. 외부의 힘이 내가 지니고 있는 조절 능력보다 클 때이다. 이 때 인간은 당황한다. 어떤 방법을 써도 답이 보이지 않고, 마치 배에 물이 가득차서 물에 잠기기 일보직전의 상황과 같다. 이 때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은 '본능'이다. 통제가 마비가 될 때가 가장 무서운 것이다. 본능만 남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와같은 상태가 올 때가 있다. 우리 생각이 완전히 침몰하는 배처럼 상황과 환경에 잠식 당하여 있는 상태를 말한다.

## (2) 믿음이 왜 필요한가?

믿음이 실제로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두려움에 잠식당하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센바람과 파도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우리 믿음의 향해 가운데 허락하실까?

## (3) 거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분은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39절)

[마가복음 4:39]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거센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는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거센 풍랑을 일으키신다. 우리가 죽게되어 비로소 예수님을 인식해서 깨우기 시작 할 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라고 명령하셨다.

거센 풍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이유는 한 가지이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시작하는 것이다.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잠잠하게 명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 중에 없다. 하나님만이 가능한 영역이다. 거센 풍랑이 일어나는 그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순간이다.

## (4) 풍랑속에서 사실 너무 힘들다.

풍랑을 이기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자들도 죽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죽을 것 같이 힘들다. 죽을 것 같은 순간은 말 그대로이다. 내일이 없는 것 같다. 오늘 있었던 고통이 해결됨 없이, 내일도 기약없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심령이 말라간다. 성경도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 (5) 죽을 것 같이 힘든 풍랑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

### \* 주무시고 계신 예수를 일어나게 하라.

제자들처럼, 죽을 것 같은 상황속에서 예수님을 깨워서 의지해야 한다. 실낱같은 희망으로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상태이다.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 포기해서도 안 된다. 내가 타고 있는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워야 한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알겠지만 이 순간이 내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순간이다.

## (6) 고요함 가운데 오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결국 어떻게 되는가? 죽을 것 같은 폭풍이 없었던 것처럼 하늘은 맑고 바다는 고요하다. 명심하라. 이 순간을 버티고 나면 '영적공기'가 바뀌는 순간이 있다. 이것이 마음의 바다안에 살롬이 임한 상태이다. 알 수 없는 평안과 확신이 드는 순간이다. 감사함으로 벅찬 순간이다. 이 폭풍우를 잘 견뎌낸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하는 순간이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이 모든 상황을 고요하게 할 수 있는 분' 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다.

그래서 그들은 말한다. 마가복음 4: 41절에 보니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폭풍에 속에 있던 제자들이 '경외함'으로 바람과 바다까지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이다. 이 예수님에 대한 다른차원의 인식이 '큰 믿음'이다.

5. 풍랑을 통해 배우는 큰 믿음의 원리.

- (1) 파도는 올 수 있다.
- (2) 그 순간이 힘들 수 있다.
- (3) 풍랑이 임할 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워야 하며, 내가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
- (4) 예수님으로 인해 갑자기 바람과 파도는 잠잠해진다.
- (5) 바람과 거친 파도 뒤에 반드시 고요한 살롬의 상태가 찾아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 (6) 풍랑 뒤에 찾아오는 고요함의 상태는, 광대하신 예수님을 담아낸 큰 믿음의 상태라는 사실을 반드시 확신하라.
- (7) 풍랑 뒤에 찾아오는 살롬은, 경외함과 기쁨과 소망과 새 힘으로 가득하다.